

# 산 넘어 산 그러나 다시 찾을 산

- 이름 : 최윤아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프로그램 부서
- 직위/직급 : Resilience Building Assistant
- 지원경로 : UNV
- 근무기간 : 2021.09. - 2022.09.

## 흔들리는 나라, 스리랑카

낮선 곳에서의 시작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스리랑카에서 지정한 격리 호텔로의 이동이었다. 이른 새벽에 도착한 호텔에서는 의료진에게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지만 그 이튿날 체크아웃할 수 있었다. 사실 스리랑카는 도착하기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임시거처로 미리 예약했던 숙소의 집주인 분께서 딸 나이대의 젊은 외국인 여자애가 혼자 온다고 걱정하시며 식재료 같은 건 본인이 미리 구비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굶기지 않을 거니 걱정 말라며 연락 해주시기도 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불안과 든든함이 공존한 상태로 시작한 스리랑카에서의 근무는 도착한 날부터 바로 시작이었고 첫 한 달 여 간의 기간동안은 락다운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였다.

## 코로나 시대, 출장길에서 처음으로 만난 동료

WFP(세계식량계획)의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락다운으로 시작한 근무는 내가 사무실 내에서 어떤 동료들과 일하며 그들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하는지 오로지 노트북 화면 너머 동료들의 음성을 통해 감을 잡아야 했고 특히 필드 사무소가 많은 WFP(세계식량계획)이기에 사무소별 지역과 이름을 파악하는 것부터 충분히 어려웠다. 슈퍼바이저는 Resilience(회복력 구축팀), Social Protection(SP, 사회적 보호팀), 그리고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EPR, 비상 대비 및 대응팀), 이렇게 3팀을 담당하시는 분이였기 때문에 나는 Resilience Building Assistant(회복력 구축 어시스턴트)라는 직함임에도 해당 파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3팀 모두를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택근무 기간 동안

에 사무실 출근 없이 3팀의 프로젝트에 대해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했지만, 다행히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시간을 내서 1대1 미팅을 잡아 지도해주시는 수퍼바이저와 업무를 설명해주기 위한 팀별 인덕션 미팅을 준비해준 동료들 덕분에 락다운 기간 내에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다.

첫 출근은 재미있게도 사무실이 아닌 필드사무소로의 출장이었다. 그렇다 보니 주로 같이 일하게 될 직원들의 얼굴을 화면이 아닌 실물로 보는 것이 출장 가는 차 안이었기에 참으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다. 락다운 기간 중 출장이라 직원 4명이 한 차에 타면서도 각 줄에 따로 앉아 가다가 출발한 지 2시간이 되어서야 휴게소에 내리면서 각각 맨 앞과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던 수퍼바이저와 나는 제대로 된 첫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누구도 예상 못 했던 팬데믹, 전례 없었던 새로운 출장 방식은 너무나 독특했지만 ‘왜 하필 내가 파견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상사들과의 첫 만남이 3박 4일의 출장이었고 그 시간 동안 내내 붙어 있으니 오히려 사무실에서 첫 만남을 갖는 것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훨씬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남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하고 감사한 출장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 디폴트 선언, 통행금지와 13시간 단전

임시숙소를 떠나 정착해서 살 집으로 이사도 가고 내가 3개의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이후 적응을 마쳤다고 생각할 때 즈음,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자연재해, 코로나로 망한 관광산업에 더불어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며 달리는 동이 나고 국고가 거덜이 나 스리랑카 루피의 가치는 추풍낙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스리랑카는 결국 경제 위기로 디폴트 선언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솔직히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떠나야 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피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국민들이 빈곤에 허덕이며 수입을 하지 못해 기름조차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가는 락다운이 풀린 지 채 몇 달 되지 않아 통행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맨 처음의 통행금지는 그나마 종종 나갈 수 있었던 락다운에 비해 칼같이 확실했다. 거리에 군경 외에는 없었다. 식량과 물이 떨어지고 배달도 되지 않으니 문제가 되었기에 며칠 뒤부터는 잠시 정해진 시간대에 나갈 수 있게 바뀌기도 했다. 이때 마트는 감자와 우유 같은 식자재가 언제 또다시 집 밖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두려움에 순식간에 동이 나곤 했다. 며칠은 이동 가능, 그다음 며칠은 또 통행금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의 연속은 지속되었고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발동한 통행금지 제재에 전 직원이 급하게 짐을 싸서 집으로 가는 일도 있었다. 기대했던 생일날, 스트레스성 장염과 통행금지가 동시에 겹쳤을 때는 정말 섬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극대화되기도 했다.

통행금지 기간을 더욱 버티기 힘들게 하는 것은 단전이였다. 기름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스리랑카에서 정전은 너무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한동안은 지역별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돌아가며 단전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글을 작성하는 2022년 12월의 지금도 현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종종 예고 없는 단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통행금지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무더운 날, 에어컨 없이 버텼던 13시간 단전 경험은 내 인생 최장의 전기 없는 삶이었다.

## 불안 속 숨구멍 트기

이렇게 스리랑카의 상황이 확실히 한국에서의 삶보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았기에 업무 외의 시간을 힘들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했다. 툭툭을 타거나 물건을 살 때 간단하게 내뱉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싱할라어는 단순 흥미를 넘어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재밌었고 한국문화를 잘 아는 싱할라어 선생님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말도 잘되지 않는 소리들을 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층, 다른 팀 직원분들까지 관심을 가지시며 나의 어눌한 싱할라어를 재밌어하기 시작했다. 간간히 내 자리를 지나가실 때면 괜히 한 번씩 싱할라어로 말을 걸어보기도 하시고 나 또한 괜히 간단한 대답을 싱할라어로 해보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던 이방인으로서의 벽은 한 층씩 빠르게 허물어져 갔다.

어느덧 사무실을 나가는 게 행복했고 퇴근하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이 즐거웠다. 언어는 단순히 말 그 자체가 아닌 문화의 연계였고 인간의 친밀감을 증폭시키는 가장 빠른 수단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

언젠가 “유엔에서는 누가 일을 주지 않아, 직접 찾아서 해야 해”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WFP에 있는 동안 그 말에 100%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접 찾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어필할수록 기회가 찾아온다는 멋진 뜻이 담긴 말이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Resilience, SP, EPR 이렇게 3개의 팀을 돕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처음부터 일이 쏟아졌던 두 팀과 다르게 EPR에서는 처음 6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나에게 아무런 일을 주지 않았다. 사실 나의 관심은 처음부터 EPR 직무에 가장 쏠려 있었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EPR팀 직원분들이 티타임을 가지러 나가신다기에 대뜸 따라가겠다고 했다.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뜬금없이 마치 또 한 번의 면접을 보는 것 마냥, “저는 EPR 사업과 관련한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고 관련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에서 6개월 유학을 했으며 앞으로 이머전시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어요, 더욱이 제 직책의 직무기술서에 EPR을 서포트하는 것도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EPR의 일을 꼭 하고 싶어요” 라며 말씀드렸다. 나름 한 번 크게 용기를 내보았던 그 때의 티타임은 바로 그 다음 주에 EPR팀의 출장에 끼게 되면서부터 그 후 자연스럽게 내 워크플랜에 엄청난 양의 EPR 직무가 자리 잡는 행운으로 이어졌다.

기회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다가오는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만들어준 기회를 수동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원하는 게 있다면 직접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일 때 더욱 큰 성과로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다. 슈퍼바이저가 한번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아무한테나 가서 도와줄 거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흔쾌히 일을 맡길 거라고, 다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일거리에 늘 치여 있어서 도움을 청할 정신이 없을 뿐이지 누군가 손을 내밀면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일을 나눠 줄 것이라고.

## 수퍼바이저 그 이상의 멘토

모든 것이 익숙해진 후일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았을 때 내 머리는 과부하를 일으키곤 했다. 내 능력 내에서도 해결이 가능했을지라도 다양한 일을 맡음으로써 어느 것이 우선인지 순서의 체계를 스스로 세우지 못할 때에는 늘 수퍼바이저를 찾았다. 반대로 새로운 일을 더 하고 싶을 때 혹은 리포트 작성에 수혜자 인터뷰가 필요해 출장을 가고 싶을 때에도 늘 그녀를 찾았다. 수퍼바이저는 팀의 헤드였기 때문에 정말 바쁜 와중에도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개인 상담을 통해 내 워크로드를 확인하고 나의 직무 수행에 있어 기꺼이 길라잡이가 되어 주고자 하셨다.

워크로드 뿐만 아니라 나의 관심 분야, 업무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출장에서 있었던 일 등을 항상 물어보셨다. 앞으로의 나의 커리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늘 눈에 보이는 산출물이 있는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내가 기여하는 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셨다. 특히 비록 어시스턴트임에도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10번 이상의 출장을 하였고 그중 2번은 혼자 필드 사무소를 가서 수혜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도너 리포트를 온전히 홀로 쓸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내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을 때마다 늘 “그럼”, “물론이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해!” 이렇게 3가지 답변만 주던 그녀의 절대적인 지지 덕분이었다.

일이 너무 과도하게 많거나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나 혹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수퍼바이저를 찾아갔다. 수퍼바이저는 업무적으로 내 커리어를 확장시키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리더이자 앞으로 이 길을 걸을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해나가야 할지 몇 걸음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 주는 선배였다.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배우고자 노력할수록 그 사람을 실제로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았다.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주 찾아가 수퍼바이저를 귀찮게 해보자.

## 쉽지 않지만 계속 오를 산

처음부터 계약기간 내내 적응의 대상들이 락다운이며 통금이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꿔가며 찾아왔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사

무실 내 유난히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지만 알고 보면 제일 많이 신경을 써주시던 동네 아저씨 같은 상사분이 언젠가 나에게 어떻게 딱 이 나라가 가장 힘들 때 왔냐고 안타까워하며 물으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좋은 기간에 왔다고 내 시간은 행복했으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언제 전기의 소중함을 이렇게 매순간 느끼겠냐고, 살면서 두 국가에서 정권을 바꾸는 시위를 본 사람이 어디 흔하겠냐며,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두 번 본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냐며 이런 시기에 WFP(세계식량계획)에서 일하는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기에 내가 가장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WFP(세계식량계획)의 눈부신 대응을 봤기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다시 도전해보려 한다.



필드사무소 수혜자 인터뷰 이후



WFP 노벨평화상 상장 및 배지 수여



프로젝트 수혜 농가 방문 및 작물 확인



프로젝트 수혜자 방문 및 인터뷰